
문서번호 : 13-04-노동-01

수 신 : 언론사 및 사회단체

발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(담당 : 이현아 간사)

제 목 : [성명서] 불법파견의 주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고,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
원 정규직화하라!

전송일자 : 2013. 4. 19. (금)

전송매수 : 3매

[성명서]

불법파견의 주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고,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라!

지난 4월 1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김학중 조 직부장이 “비정규직 철폐하라. 인간답게 살고싶다”, "자식에게 비정규직 물려줄 수 없 다."고 외치며 분신을 기도하는 비극이 발생했다. 기아차 광주공장이 자동차 증산으로 필요 한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차별적인 신규채용을 강행하자 이에 맞서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분회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개월 이상 천막농성을 2개월 이상 진 행해오던 중이었다.

그에 바로 앞선 지난 4월 14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현대차의 촉 탁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말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일터로부터 쫓겨난 노 동자 한 명이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. 이 노동자는 2008년경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소 속으로 10개월, 6개월 등 결원이 된 공정에서 근무하였고, 2011년 1월부터는 엔진변속기 공 장에서 16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작년 7월 “별 문제없으면 촉탁직으로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높다. 촉탁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한다” 는 등의 회유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현대차의 촉탁직 전환을 수용하였다. 당시 이처럼 촉탁직 으로 전환된 인원이 무려 1,500여명이다. 그런데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촉탁 직 전환 조치는 작년 8월 2일부터 하루라도 불법파견을 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(파견법)이 시행되면서 이 를 회피하고자 벌인 꼼수였다. 현대차는 그마저도 촉탁직 2년 근무 가능성에 대한 언질을 뒤집고 만일에 대비하여 사내하청 근무기간과 촉탁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2년이 되기 직전

1

.

3

29

6

21

10

2004

2006

?

?

()

"

2013년 4월 19일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
위원장 권영국

